

## 7/21(수) 다니엘 묵상 43

### 다니엘 10:10-2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한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천사들은 다니엘로 하여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 영적인 세계

다니엘서 10장의 본문에는 영적인 존재들의 모습이 여러군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13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어제 묵상한대로 단 10:5-6절에 기록된 존재는 성육신 하기 이전의 그리스도 또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이는 '천사' 또는 '가브리엘' 천사로 볼 수 있고, 13절은 본문의 말씀대로 '미가엘' 천사 그리고 16절과 18절에 기록된 이는 학자들에 따르면 '가브리엘' 천사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가브리엘이 이전 말씀(단 9장)에서도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다니엘을 가리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단 9:23)'라고 호칭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두 군데나 다니엘을 가리켜 '큰 은총을 입은 사람(단 10:11, 19절)'이라고 호칭합니다. 한편, 13절을 보면 악한 영들의 존재도 등장합니다(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일까요? 문자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사 왕국의 군주는 21일간이나 가브리엘 천사로 추정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길을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군주이길래 천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ESV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An evil angel associated with the Persian Empire who resists God’s purposes.” 즉, 그는 악한 천사 다시 말해서,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이하게도 사탄을 가리켜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공중(이 땅)의 권세 잡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엡 2: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처럼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끌어 안고 히데겔 강가(티그리스 강가)로 나아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본문은 다니엘이 스스로 기도하기로 겸비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사탄의 방해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사탄은 다니엘의 기도를 막고자 메대의 고관들로 하여금 악한 술수를 꾸며 다니엘을 사자 굴로 위협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고자 사탄은 천사의 길을 막았습니다. 이는

우리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할 때 동일한 영적 전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가엘의 도움으로 인해 다니엘에게 무사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장악하고 또 믿는 자들조차 죄 가운데 유혹하고 영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벧전 5:8-9,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마저 유혹했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마 4:8-9절, “마귀가 또 그(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사탄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의 존재는 실제이며 과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탄을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믿음으로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적의 공격에 방어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세가지 유혹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살아갈 때 그 어떤 사탄의 유혹과 악의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하이티를 위한 기도:**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 가운데 처한 하이티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조속히 국가가 다시 안정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관리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에티오피아의 이기형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